

조경수목의 생산과정과 전망



머리말

그 동안 우리나라 조경수목의 생산현황에 대한 자료는 현재 산림청, 조달청, 한국조경수협회와 발주처별로 매년조사 되고 있으나, 통계조사치의 정확성과 신뢰 등이 낮았고 또한 규격별 조사가 행하여 지지 않고 수목의 수령별, 경급별로 조사되어 실용상의 활용가치가 적었다. 지금도 어느 나무로 인하여 소득을 많이 하였다하면 너도 나도 과잉생산하여 몇 년 못가서 생산자는 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것은 서로의 정보를 모르고 남이 장에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격이 되는 것이다. 조경수 생산자는 자기가 식재된 수목을 하였을 때는 계획성 있게 발주처와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조경수 재배는 대체적으로 대중성이 있는 수종으로 집중적으로 재배 되고 있다.

현재 조경수 생산업체는 사회, 경제적인 제반 여건의 영세성과 법제도의 구조적 결함, 기술 인력의 부족 등으로 신규 소재개발의 미흡,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가격 적정화의 미 현실 등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조경수 재배는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신규 소재와 개발로 수목생산 및 공급 등이 조경수 생산업에 있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설계자의 의도와 시공자의 기술을 반영하여 보다 특색 있고 장래의 욕구를 충족 할 수 있는 조경분야의 책임에 우리 모두 공감하고 과감하게 협력하여 나가야 될 것이다.



농학박사 박형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1. 조경수목 생산의 문제점

- 무계획적 생산

최근 산림청에서 조사된 보고서에서 조경수 생산업자들 간에도 정

확한 생산실태의 파악이 어려워 생산자들의 재배수목 선정시 정부나 공공기관의 식재 공사시 많이 쓰이는 수종이 알려지게 되면 재배자들의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경수목의 정보는 전체적으로 입수하지 못하고 약간씩만 정보를 얻기 때문에 장래의 조경수목의 수요의 예측이나 전망을 알 수 없는데다 타 조경수목 생산업자의 수목보유 상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없기 때문에 계획성 있는 조경수 생산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려면 산림조합이나 정부차원에서 조경수목의 생산과 수요를 조사하고 지도하여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능마저 갖추고 있지 않아 조경수목이 생산 재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조경수목은 생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시장정보

조경수목 생산업자들은 일부업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기가 생산 하고 있는 수목의 판로 즉 수요처를 정확히 그리고 그 공급시기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조경수목 수요에 관한 정보가 공표되지도 않을 뿐더러 수목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 중간 상인을 통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

조경설계자들과의 거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향후 전망되는 새로운 수종의 수요, 그리고 실수요자 측에서 요구하는 수종이나 수목의 질적 수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더욱 수목생산 과정에서 불리하다.

- 부업적인 경영형태

조경수목 생산업의 경영 형태는 대부분 부업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경수목 생산업의 대부분이 주 수입원은 다른데 있고 조경수목 생산에서 얻은 수입은 부수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조경수목을

주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생산자들은 조경수목 생산에 대해 큰 기대를 갖지 않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 생산수종의 집중화

우리나라 조경수목은 다양하지 못하다. 식재되어지는 수종이 거의 비슷하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원인중 하나가 우리나라 조경수목 생산업자들이 새로운 수종의 개발보다는 인기가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많이 이용하는 수종을 안전하게 택하여 재배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경수목 실 수용자나 발주자 그리고 조경설계자들은 새로운 수종이 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일부에서 재배되고 있더라도 생산 정보가 없어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구되는 수량이 확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는 점등을 들어 조달청에서 고시되고 있는 수종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경향이 커 새로운 수종을 개발 하였다 하더라도 설계서에 반영이 되지 않고 기피하는 현상을 유발한다. 또 하나 공공기관에서의 조경공사의 경우는 감사에 대비하여 안전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결정이 어렵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새로운 수종보다는 수목 단가가 이미 고시 되어 있는 수종만을 택하게 된다

- 복잡한 생산구조

조경수목의 생산경로는 여러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간단계의 하청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생산구조를 갖고 있다.

조경수목의 생산단계에서 중간상인의 개입이 많아지고 하청단계가 많아질수록 생산과정에서 빠져나가는 중간이득이 크기 때문에 생산자의 판매가격이 낮아지든지 아니면 실수요자의 구입가격이 높아지게 되어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생산구조가 복잡해지면 수목의 품질에 대한 책임도 애매해질 뿐더러 불성실한 중간상인은 운반비를 줄이기 위해서 과다적재를 행하는 등으로 수목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많다.

- 이차보수

생산과정에 중간이득이 크기 때문에 생산자의 판매가격이 낮아지고 낮아진 판매가격에 맞추려고 하니 생산가의 상승요인이 되는 뿌리돌림, 이식 준비작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하여 하자발생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조경수목의 납품시에 수목의 품질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고, 수목단가도 수고, 수관폭, 흉고직경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수목의 규격에만 맞추기 때문에 수목의 품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율이 많이 발생 된다.

- 생산 판매의 발생

조경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수익을 고려하여 유희지 등에 재배한 수목들은 사실상 기술부족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수목들은 품질에 있어 신뢰도가 떨어지며 판로 또한 덩핑의 형태로 매매된다. 이렇게 발생된 덩핑판매는 그 파급효과가 유통시장 전체에 일어나 타 생산업자의 수목판매가를 부당하게 낮추게 되며 계속 덩핑판매가 속출하게 된다. 덩핑판매로 생산되는 조경수목 들은 대체적으로 수목의 품질이 저하되어 하자 발생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중간상인의 중간 이익을 많게 해주는 영향을 일컫는다.

- 이익 과다

조경수목 생산 중간 단계에서 중간상인이 취하는 이익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30~50% 정도의 이익을 중간 단계를 거칠때 마다 얻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중간 이익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간 단계를 거칠때 마다 단가가 올라가는 사례가 많아진다. 그리고 이들 중간 상인 들은 대부분 영업장소를 개점하여 영업을 하는게 아닌데다 거래상의 신용을 믿을수

없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생산유통 질서가 바로 서지 않는 예가 많다.

- 수목의 규격화

현행 생산되는 조경수목은 거의 대부분 수고, 수관폭, 흉고직경, 근원 직경만을 근거로 해서 규격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단가가 매겨져 생산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규격만으로는 실제 조경수목의 품질을 알 수 없으며 규격도 융통성을 많이 가질수 있다. 같은 규격의 수목이라도 품질의 차이가 다양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실제 원하는 품질의 수목의 규격을 현행규격대로 정하여 발주를 했을 때 납품되는 조경수목은 전혀 쓸모없는 품질이어서 규격에 맞는 수목이 납품 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규격(수고, 흉고직경)에 약간 미달이 되더라도 그 나무의 수형과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납품이 되어야 한다.

- 생산정보

모든 상품에서나 마찬가지로 조경수목의 생산과정에서도 생산정보가 매우중요하며 생산 공급과 수요가 생산량의 정보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게 사실인데 조경수목의 생산정보는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파하는 기능을 좌우 되는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수목 생산자들은 생산 상황뿐 아니라 수요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아는바가 없고 실수요자 역시 마찬가지로 실정이다. 조경수목 생산자와 실수요자를 직결시켜 주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2. 조경수목의 생산 및 개선

- 조경수목의 개발과 이용

전에는 수종별 수급전망에 대한 수요 예측이나 동향에 대한 조사 자료가 전혀 없었으나 최근 통계에 의한 큰나무와 어린나무와 큰나무의 비율

이 3.5:1이었고 이중사용 빈도가 높은 수종은 철쭉, 회양목, 주목, 느티나무 등의 순으로 어린나무와 정식되어 있는 큰나무가 다같이 많아 재배 및 판매에 수종을 이루는 인기 수종임을 알수 있으며 최근에는 소나무를 많이 재배 되고 있고, 특용수로는 오갈피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마가목 등이 재배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중 관목의 경우 철쭉과 회양목이 전체 관목 재배본수의 약1/4을 차지해 심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경용 수종 중 국내산과 도입종의 비율은 6:4정도이고 사용빈도가 높은 수종 중 하자 발생 수종이 약 30%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조경 설계시 수종 선택에 있어 하자 발생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새로운 수종의 개발은 학자, 공무원, 시공자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적응력을 실험 검토 한 뒤 실시 되어져야 한다.

개발대상수종을 보면 교목류는 느릅나무, 때죽나무, 모감주나무, 산딸나무, 서어나무, 층층나무, 중국굴피나무, 물푸레나무, 구상나무, 참나무류, 팽나무, 산사나무, 고로쇠나무, 박달나무, 노각나무, 팔배나무, 귀룽나무, 산단풍, 굴거리나무, 화목류는 꽃아그베나무, 조팝나무, 미선나무, 백리향, 붉은병꽃나무, 야광나무, 붉나무, 마가목, 매자나무, 생강나무, 난대수종은 돈나무, 녹나무, 후박나무, 가시나무류, 태산목, 만병초, 관목류는 흰말채나무, 개쉬땅나무, 넝쿨성은 으름나무, 머루, 인동덩굴, 능소화, 담쟁이, 등칫, 지피식물은 조릿대, 등이다.

우리나라 조경수목은 낙엽성 수목으로 과수목이나 화목류를 정원수로 많이 이용되어 토목사업, 절개지나 공공 시설물의 조경수목으로 많이 식재 되었다.

앞으로 몇 수종에서 탈피하여 나무의 기능과 수형을 살려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에 따라 미적으로 달리 표현되고 식재시 주위의 환경에 잘 적응 할수 있는 수종들이 적합하다.

- 생산 및 개선

조경수목의 개발 및 생산구조, 규격표준화 및 가격적정화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워낙 복잡한 문제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점의 해결이 어렵다고 문제점을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생산자나 실수요자 모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고 더 나아가 조경업 전체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맺음말

앞으로 우리 향토 수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조경수종을 개발 육성하고 지역적으로 이차산물의 이용기술을 개발하여 특산화 시킴으로서 그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브랜드화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 되며, 조경수목의 소재 다양화, 생산의 전문화 및 인적 교류의 활성화 등의 체제 개편이 필요 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새로운 소재가 있으면 설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서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